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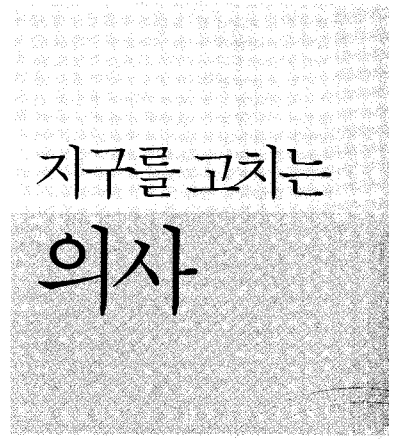
1985년 2월 방콕에서 열린 아태 지역 환경 장관회의에서 “매년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면 매 15년마다 자원은 배로 늘어야 하지만 최근 몇 년 간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줄고, 그 질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삼림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지구 대기권의 산소 농도가 불과 50년 사이 0.5%가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50년 이내에 지구 환경은 생물체가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될지도 모른다.

1992년 리우환경 정상회담 이후 환경 오염에 대한 위기 의식이 부각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 등 160여 개의 각종 협약들이 체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들은 국제 무역 환경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자원 처리 문제도 이러한 상황적 맥락 속에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 재활용을 연계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맥산업인 재활용이 활발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각종 단체들 뿐 아니라 3,500여 재활용 업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재활용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재활용 신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자금력도 문제이거나 인적 구성도 열악하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연구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장과 밀착한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의 재활용 연구는 기존의 재활용 기업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새로이 닦쳐오는 그린라운드의 열풍 속에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의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구를 고치는 의사”이다.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지구를 고치는 의사